

여수엑스포 결정 D-6

정부·전남도 유치단 파리로

대표단 주역 3인 출사표

정부와 전남도가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20일 각각 출정식과 도민한마음대회를 열고 여수엑스포 유치여부를 결정할 세계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임하는 결의를 다졌다.

전국민 염원 실은 '희망의 돛단배' 출항

서울서, 전남서 유치 뜨거운 결의 민주노총 등 지역노동자도 동참

정부와 전남도가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세계박람회기구(BIE) 제142차 총회를 1주일 앞둔 20일 여수엑스포 유치 성공을 다짐하는 결의를 새롭게 다졌다. 또 전남지역 노동자들도 여수엑스포 유치를 한 목소리를 냈다.



20일 오전 서울 계동 현대사옥 광장에서 열린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성공 출정식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등 참석자들이 '포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은 해수부차관, 오현섭 여수시장, 조종표 외교교통상부 제1차관, 한 총리, 한시람 건너 김재철 유치위원장.

20일 오전 서울 계동 현대사옥 광장에서 열린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성공 출정식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등 참석자들이 '포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은 해수부차관, 오현섭 여수시장, 조종표 외교교통상부 제1차관, 한 총리, 한시람 건너 김재철 유치위원장.

있었다"면서 "27일 BIE 총회가 열리는 프랑스 파리에서 '여수 코리아' 낭보가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엑스포 유치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일부 우려를 불식시키고 노동자들도 엑스포 유치에 한마음 이라는 것을 보여주어 위를 이뤄졌다.

500일 노력 헛되지 않게 남은 기간 혼신

◇한덕수 총리=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해 우리는 지난 500여일동안 모든 열과 성을 다해 전 세계를 향한 유치활동을 펼쳐왔다.



외교력 총동원 2차 투표에 승부 걸겠다

◇김재철 위원장=1차에서 결판이 나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1차에서 다른 나라를 지원한 국가도 2차는 우리를 지원하도록 외교력을 총동원 하겠다.



낙후 전남 운명 바꿀 계기 유치 온 힘

◇박준영 전남지사=전남도가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해양자원을 바탕으로 하는 여수엑스포를 유치하면 낙후된 전남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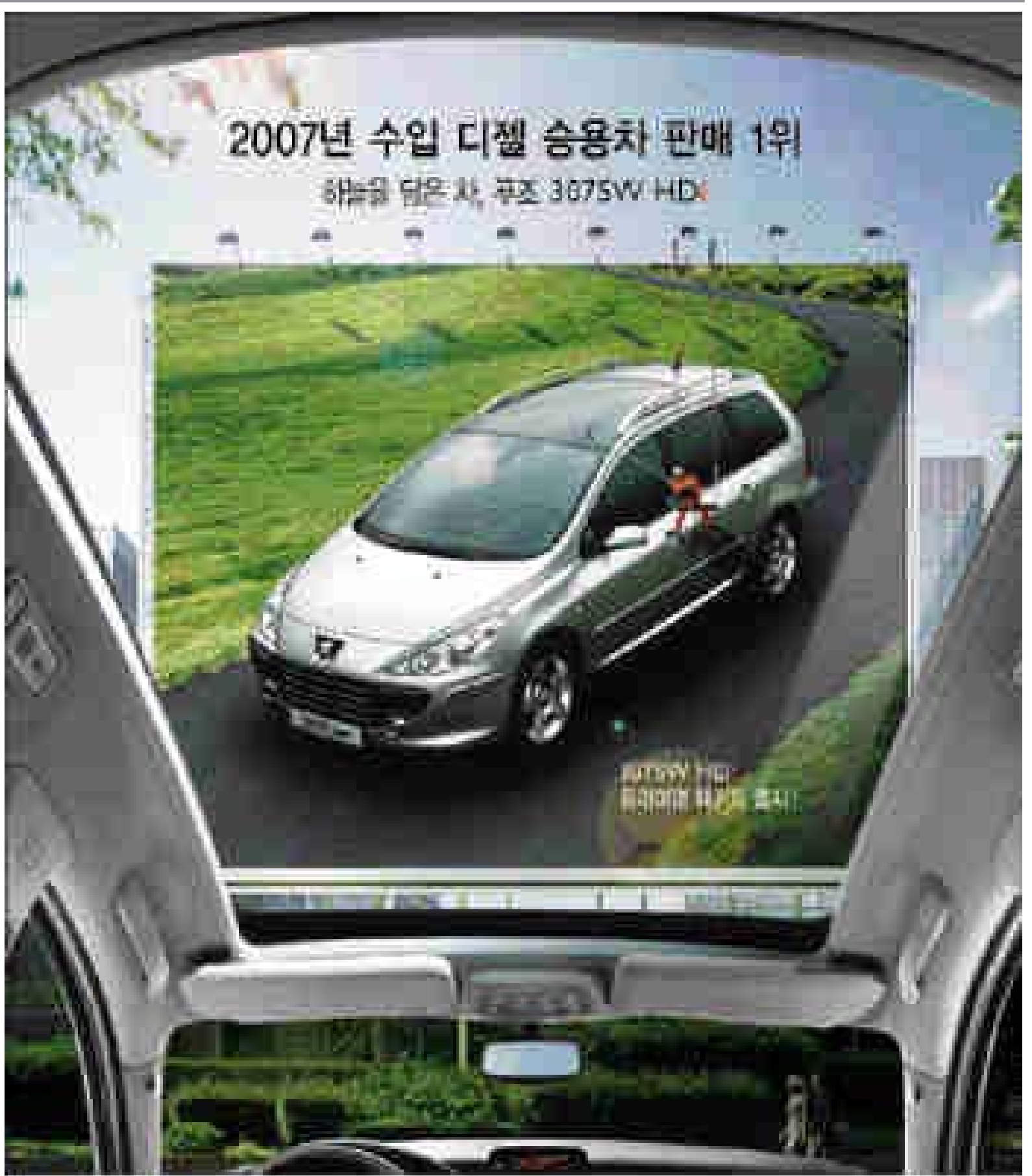
특별법 무산... 전남 F1 대회 작초 위기

경주장 사업비·자본금 확보 '막막'

기업 투자 유치도 막혀...전남도 "계획대로 추진"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되면서 전남도가 '지역의 운명을 바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오던 F1대회가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어서 이의 적용을 받기 힘들 것으로 알려졌다. 또 KAVO의 자본 51%를 보유한 프로모터 업체 MBH가 올 연말까지 500억 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계약에 따라 전남도가 자본을 액면가로 인수하도록 돼 있는데, 그럴 경우 관이 50% 자본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기업도시특별법에 저촉돼 나머지 자본을 팔아야 한다.



Advertisement for Hyundai Accent 307 SW HDX,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for Hyundai Motor Korea and a list of dealerships.

"정치인들 소아병적 사고 F1특별법 무산"

박준영 지사 강력 비난 F1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무산된 데 대해 박준영 지사가 20일 지역국회의원 등을 포함한 정치권을 강력 비난했다.

비협조적이었다"며 "누가 반대했는지 알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다. 박 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대립했던 상황을 돌아보며 "(지역발전을 위해) 크게 보고 가야하는데 소아병적 사고를 하고 있다"며 지역출신 일부 의원들에게도 F1특별법 무산 책임론을 제기했다.